

번호 09-6

제 목	국문	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요인 규명을 위한 코호트내 환자-대조군 연구			
	영문	What Factors Affect Cerebrovascular Diseases Attack in Koreans			
저 자 및 소 속	국문	<p>박종구, 김기순¹⁾, 김춘배, 이태용²⁾, 이덕희³⁾, 고광욱³⁾, 이강숙⁴⁾, 지선하⁵⁾, 서일⁶⁾, 류소연¹⁾, 박기호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,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¹⁾,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²⁾,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³⁾,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⁴⁾,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⁵⁾,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⁶⁾</p>			
	영문	<p>Jong Ku Park, Ki Soon Kim¹⁾, Chun-Bae Kim, Tae-Yong Lee²⁾, Duk Hee Lee³⁾, Kwang-wook Koh³⁾, Kang-Sook Lee⁴⁾, Sun Ha Jee⁵⁾, Il Suh⁶⁾, So Yeon Ryu¹⁾, Kee Ho Park Dept. of Preventive Medicine,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; Dept. of Preventive Medicine, College of Medicine, Chosun University¹⁾; Dept.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, College of Medicine, Chungnam National University²⁾; Dept.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, Kosin University³⁾; Dept. of Preventive Medicine, Catholic University Medical College⁴⁾;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, Yonsei University⁵⁾; Dept.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,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⁶⁾</p>			
분 야	보건관리 () 역 학 (○) 환 경 ()	발 표 자	일반회원 (○) 전 공 의 ()	발표 형식	구 연 (○) 포스터 ()
진행 상황	연구완료(○), 연구중() → 완료 예정 시기 : 년 월				
<p>1. 연구 목적 '코호트내 환자-대조군'의 틀을 이용하여 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요인을 규명한다.</p> <p>2. 연구 방법</p> <p>KMIC 코호트(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(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됨, 이하 공단이라 함)의 피보험자중 1990년 및 1992년에 실시된 건강검진을 모두 수검한 남성 피보험자중 10%를 단순 확률추출한 115,600명으로 이루어진 코호트) 중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지난 5년 동안 뇌혈관질환(I60 - I68)으로 입원치료받고 진료비가 공단에 청구된 환자 2,026명 중에서 추출된 425명을 환자군으로 선정하였다. 대조군은 KMIC 코호트 중 연구기간 동안 뇌혈관질환에 이환된 경험이 없으며, 뇌혈관질환과 관련이 없는 타 진단명으로 환자군과 같은 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들 중 환자군의 성·연령 분포에 따라 1:1 빈도 대응추출을 하여 선정하였다.</p>					

연구대상자들에 대한 자료원은 공단으로부터 확보한 1990년도의 건강진단 결과파일과 1992년 건강진단시에 시행하였던 문진표가 입력된 파일 및 연구 대상자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 조사결과이다.

3. 연구 결과

전체 뇌혈관질환에는 고혈당과 고혈압이 위험요인이었으며, 비흡연자보다는 과거 흡연자의 위험도가 더 낮았다. 허혈성 뇌혈관질환에는 고혈당과 고혈압이 위험요인이었다. 출혈성 뇌혈관질환에는 혈압만이 위험요인이었다.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전체 뇌혈관질환, 허혈성 뇌혈관질환 및 출혈성 뇌혈관질환 모두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.

4. 고찰

본 연구는 주로 단면적 연구가 시행되었던 우리 나라에서 코호트내 환자-대조군 연구의 모형을 이용하여 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을 밝혀내고자 한 연구이다.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, 연구대상자를 지역사회가 아닌 병원이용자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. 그러나 대상자가 공단의 피보험자로 구성되어 있고, 특정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전국에 분포되어 있어 일반인구를 대표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. 둘째, 추적기간이 5년으로 짧았기 때문에 잠정적 위험요인과 뇌혈관질환과의 관계가 원인-결과 관계가 아니고 결과-원인 관계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. 이러한 문제는 향후 좀 더 장기간의 추적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.